

성령의 망aggi

2015년 10월 첫째주(4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생명의 망 잇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6,500교회, 160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이름도 생소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한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왜곡되고, 그 왜곡된 환경이 낳은 오류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변화는 이 땅의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믿음의 터전을 마련했던 자랑스런 한국교회의 못자리, 농어촌교회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성장,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운 인간의 물질주의의 폐해요, 그 결과 생명을 일구는 농어민들은 농어촌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농어촌 교회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어린이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상들이지만,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더 많이 흘려야만 하는 농어촌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때 뜻 있는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돌보고 협약해 나가는 목회를 ‘생명의 망 잇기’운동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신앙운동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일이 어느 특정한 교회나 단체의 일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부터 [농촌선교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관심이나 주목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 땅의 농어촌교회를 살려낼 방안을 감리교회 차원에서 마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일을 위해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에서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 모임인 ‘생산공동체’를 만들고, 여기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하는 도시교회의 교우들은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생명의 망’을 엮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품을 팔고 사는 거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는 생명운동입니다. 나아가 소통과 교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과 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신앙운동입니다.

생명의 망을 잇는 일은 농어촌교회를 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도시교회도 함께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담과 의무감을 지니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농촌선교주일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 생명의 바람’(겔37:1-10)이 우리 감리교회 위해 일어나길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교회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농어촌 교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전하며, 마을 혹은 지역과 더불어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 22절

신토불이(身土佛二), 도농일체(都農一體) 등과 같은 말을 심심치 않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외국산 먹거리가 홍수를 이루고, 도시와 농촌의 간극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 농협과 같은 농민 단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도 깊이 음미해야 할 말이다. 오늘의 도시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농촌 교회의 희생을 딛고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교회는 농촌 교회의 어려운 현실에 둔감하다. 더 나아가서 삶의 형태가 어찌 변하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관심거리는 먹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의 문제일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영과 육을 아우르는 생명 공동체이다. 우리는 흔히 영과 육을 구분하여,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의 경향이라고 한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룩한 영은 건강한 육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영과 육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기에 그렇다. 그러 점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깊은 신앙의 차원에 속하며, 그러므로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룩한” 일이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11이하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통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육체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겉모양 때문에 서로 갈등하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갈등의 상황을 보면서 본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신앙의 핵심을 콕 찝러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의 담벼락을 허물기 위해서였다. “둘”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율법에 근거하여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문제(죄)를 극복하고 해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한 새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수평적인 관계(사회적, 정치적 평화)와 수직적인 관계(신앙적인 구원)를 확립한 사건이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회복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포괄할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의 사건에 부응할 수 있다. 이는 신약성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22절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한 일종의 취임설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오셔서 어떤 세상,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마태복음 1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당신의 정체와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말씀하신다.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맹인이 눈을 떠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뛰어 다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웃음 짓는 그런 세상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세상을 한 마디로 “하나님나라”라고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나라의 파도는 이미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막 1:15). 이 파도를 타며 하나님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만민을 부르신다.

이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나라를 교회라는 시각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고 설명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차별도 의미를 상실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깊은 진리를 가르쳤다. 연관 본문으로 선택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의 본문들은 바로 그것을 하나의 표어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자유인이나 종, 여자나 남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고후 5:17).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기념하고 늘 새롭게 현재화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행한다(고전 11:17이하). 성만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 새로운 인종이다.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차별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도시인과 농촌인을 차별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에베소서 2:14의 말씀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응어리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 공동체의 핵심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인 확신이 그대로 삶으로 실현되기에는 인간의 중심에 뿌리를 틀고 있는 죄의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너무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인간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말은 여전히

히 우리의 현실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방향으로 남아 있다. 교회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피 흘리는 노력
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
이다.

다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로 나뉘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인 교회로 눈길을 돌려보
자. 도시교회는 먹거리의 소비자 공동체이고, 농촌교회는 먹거리의 생산자 공동체이
다. 생산자 공동체와 소비자 공동체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
치 신학교와 교회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신학의 생산자 공동체인 신학교와 그것을 먹
는 소비자 공동체인 교회 사이에도 항상 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생산물을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하려는 이들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이들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높고 험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막힌
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허물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옛 사람의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
다. 소비 공동체에 속하든 생산 공동체에 속하든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
다. 새로운 인종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인종
이 되었다는 우리의 교회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의식이야말로 소비 공동체와 생산 공
동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담을 넘어서 진정한 도(都)와 농(農)의 연
결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는 진정한 생명의 공
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본문 : 에베소서 2:11-22

연관 본문: 누가복음 4:16-21; 고전 11:17-34; 고전 12:13; 갈 3:28; 골 3:11

조경철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생명의 망 잇기 운동이란

차흥도 목사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원장

함께 생각하기

농촌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농촌교회는 지속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가?

지금의 노년층(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이 지나가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핵심/ 농촌교회는 이제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구성원이 필요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원주민의 다음세대와 귀농, 귀촌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와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름 없이 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망이 필요합니다. 생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그 이해는 시스템적 사고의 특성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즉 부분에서 전체로, 대상에서 관계로, 내용에서 패턴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시대는 상호 협력과 협동 그리고 연대를 요구합니다. 농촌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전제 위에서 생산공동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농촌교회의 사명중 하나는 농촌을 지키고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농촌교회가 생명운동의 진원지가 되어 곳곳마다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이들의 연합하여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를 꾸려내 생명의 망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버려지고, 잊혀지고, 무시되는 이 땅 농촌에 우리를 보내신 뜻일 것입니다.

2. 교회마다 생산공동체를, 광역마다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를 꾸려야 합니다

농촌교회가 보내진 사명을 감당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생산공동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카톨릭은 약 150여개의 생산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생산과 소비가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카톨릭은 교구별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가 이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은 생산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까지는 각자의 안면과 인맥으로 해왔습니다. 할 만큼 해 왔습니다. 다양한 직거래를 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하였습니다. 예장생협도 해봤고, 감리교 농도생협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흩어져 있는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생명운동형 농촌신교에 걸 맞는 평신도 조직이 현재 있습니까? 벌써 있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늦었다 할 때가 아직도 빠른 때입니다. 이제라도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에 관한 결성을 생각하니 참 다행입니다. 농촌목회자협의회와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가 힘을 합쳐 이 나라 농촌을 살리고 농촌교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는 우리 안에서 소통과 교류를, 연대와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족농을 지원하고 생산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농끼리의 협동시스템을 꾸려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조직의 중심을 바꿔가야 합니다

이 일은 새로운 대안운동입니다. 농을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족농을 세우고, 협동운동의 모범을 세워가며, 각기 다른 다양한 현장에서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운동을 전개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생명의 망은 새로운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협력모델을 창출할 것입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주고 받으며, 상품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하나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생명의 망을 이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직거래가 중심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 지역 생협을 만들고, 중대형교회마다 매장을 설치하고, 지역마다 정기적인 장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거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직거래망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직거래 소비자회원을 생명의 망 회원으로 가입시켜 생명의 망을 안정시키고, 그 회원에게 미처 공급하지 못하는 물품들을 우리의 다른 회원들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여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작은 모임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갱신운동이며 개혁운동입니다. 따라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지역에서 교파를 초월한 연대를 이뤄 하나님나라를 확대해 가는 운동이며, 목회자 중심의 운동에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운동이 될 것이다. 이일을 위하여 먼저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를 꾸려야 합니다.

3. 생명의 망을 짜야 합니다

생명의 망은 생산망 이라는 씨줄과 소비망 이라는 날줄로 짜여져 있습니다 협동과 상생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우리의 방향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1. 순환성 2. 다양성 3. 상호의존성 입니다. 생명의 그물망은 위의 3가지 특성을 함께 합니다.

1) 순환성: 순환농업을 통한 생산공동체와 이를 도시교우들과 먹을거리의 나눔을 통한 나눔공동체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순환과 나눔공동체를 이룹니다

2) 다양성: 교류와 나눔의 방식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며 권장합니다. 도시와 농촌 뿐 아니라 개신교안의 다양한 교파끼리 서로의 고유한 방식을 인정하고 상호협력 합니다.

3) 상호의존성: 생산물의 나눔을 통하여 도시교우는 농촌교우의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교우는 도시교우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느 일방이 시혜를 베풀고 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과 의존을 통하여 상대가 있음으로 인해 자신이 있음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망은 생산망과 소비망이 합쳐진 형태로 생산망의 주체는

- 1)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 2) 순환농업으로 생명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족농을 중심으로 생산공동체를 일구며
- 3) 광역단위들을 기본단위로 한 전국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를 조직하여 생산망의 주체로 합니다

생명의 망의 소비망은

- 1) 도시에서 보다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각 교파의 여선교회원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 2) 바이블25와 CTS TV를 통하여 홍보합니다
- 3) 다양한 직거래방식을 도입합니다. (광역마다 오프라인 장터를 열고 이를 정기적인 장터로 이끌어 내며, 지역의 중대형교회마다 직거래 매장을 두고, 광역단위 마다 생협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회간의 자매결연과 생산 공동체의 꾸러미방식으로 도시교회와 연결도 도모합니다)
- 4) 생명의 망은 ‘바이블25’를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생산망의 회원은 농촌목회자와 교인 그리고 지역주민(가족농) 까지 포함하며,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교회의 소개, 특징, 숙박여부, 지역소개입니다. 자기 소개서엔 생산물/생산방법/생산시기/생산량/생산가/소비처/영농비/부채현황/1년결산/생산계획 등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소비망의 회원은 도시교회 목회자와 여성교인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남성교인까지 포함하며 이들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엔 가족소개/먹을거리선택 방법/한달 평균 식비/참여하고자 하는 방식 등을 기록합니다.

절차로는 먼저 생산망을 구축하고 이어 소비망을 구축하여 이를 잇습니다. 생산망은 감리교와 통합과 기장 그리고 합동과 성결교 등 농목연대에 소속한 교회들과 교인들이 함께 하는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를 꾸려 이들이 생산주체가 되도록 합니다.

4. 생명의 망에 관한 요약

4-1 생명의 망이란?

생명의 망은 물질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한국사회와 교회에서 농(農)의 영성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농촌교회들과 뜻있는 도시교회 교우들이 힘과 뜻을 합쳐 일차적으로 생명의 먹을거리를 나누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회가 생명운동에 뛰어 드는데 장애물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보다 대중적인 운동이며 사업이며 이를 통하여 농촌교회가 생명운동의 진원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4-2 생명의 망 운동의 주체

일차적인 주체는 농촌교회의 생산자들과 도시교회의 교우들이다. 감리교와 예장통합, 기장 등에서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농촌교회 목회자와 교우들(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과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감리교 여선교회, 통합 여전도회, 기장 여신도회 등이 생명의 망 운동의 일차적 주체가 됩니다. 이의 실무는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과 우양재단 그리고 CTS TV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동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합니다.

4-3 생명의 망 참여 방법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목회자와 교우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촌교회의 생산망을 조사하여 연결하고(생산자/생산물/생산방식/생산량/생산방법/생산시기/생산가/소비처 등), 이어 도시교회 교우들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의 방식으로 소비 망을 연결하여 생산망과 소비망이 이어지는 ‘생명의 망’을 완성합니다. 이때 새로 발굴되는 유기재배 생산자들은 통합된 서로 살림농도생협을 비롯하여 준비 중인 기장생협과 재건중인 예장생협의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4-4 생명의 망 사업 방법

직거래 온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방식도 함께 한다. 활성화되기 까지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 방식을 활용하고, 도시교회 교우들이 온라인직거래방식이 익숙해지기 까지 인터넷블로그를 운영합니다.

4-5 기독교생명농어업인회란?

생명의 망 운동을 확산하고 저변을 넓히며, 기본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농업을 하는 기독교인의 조직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광역단위의 조직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조직을 건설합니다.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연대, 교육, 판매 등을 그 과제로 합니다.

4-6 운영은?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생산자회원은 가입비 5만원과 매달 1만원을 기본회비로 하며, 소비자회원은 가입비 3만원과 매달 1만5천원을 기본회비로 합니다. 이 회비로 실무자 인건비와 교육비등 운영비로 충당합니다. 조직방식은 가급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출자/교육이 필요하며, 조합비를 위와 같이 차등규정 한다.

끝으로 생명의 망은 지금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생명의 망 익기

에베소서 2장 11절~22절

한국농촌현황

- 1983년 이후 2013까지 지난 30년의 통계는 한국농촌사회의 위기가 이미 도를 넘어섰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위기는 단순히 농촌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식량주권의 위기이며 국가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1983년~2013년 30년간 / 줄어든 농지는 -455,200ha. 서울전체면적의 7.5배

/ 70세이상 농가인구는 296,579명 5%에서 26%로 늘었다.

/ 전체농가인구는 -6,627,452명 24%에서 6%로 줄었다.

/ 같은기간 인구가 1,031만명 늘어난 것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감소이다.

- 농촌의 위기는 도시의 위기와 다름 아니다. 농촌교회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와 같다. 하나된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농촌선교주일을 지키는 것이 비단 농촌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임을 고백한다.

예배에 대해

- 각 교회가 고유한 예배형식을 지키고 있으니 전체를 같이 하기는 어렵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배자료를 활용한다.
- 단, 농촌신조(신앙고백)와 공동의 기도는 공교회의 차원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한다.
- 선교국(농촌선교훈련원)에서 배포한 '배너, 또는 현수막'을 공동으로 거치하여 활용한다.
- 이 주일만큼은 본문(엡2:11-22)을 일치하여 설교한다.

예배 준비

- 강단장식 : 성령강림절과 함께 진행되니 녹색이 바탕이 되는 농작물(또는 벼이삭 등)과 함께 장식한다. 농촌교회가 재배한 농산물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 찬양단(성가대) : 같은 곡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찬송가477장(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 자료 각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에 추가 합니다.

예배의 초대(기원)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 주시고,
어찌다 비틀거리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시편 37편 23절-24절

2007년부터 지켜온 농촌선교주일이 어느덧 8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농사가 땅의 기초일이며 기초가 든든할 때 세상이 건강함을 고백합니다. 식량부족, 빈곤, 환경파괴 등으로 온 세계가 위기앞에 있습니다. UN도 이에 식량부족해결과 환경보존을 고민하며 올해를 ‘가족농의 해’로 정했습니다.

오늘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의 일원으로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직무를 다하게 하소서. 참 성도, 참교회의 길을 밝혀주소서.

공동의 기도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내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한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거리를 기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또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농부들의 헌신을 통한 열매를 먹고 사는 저희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고백(농촌교회신조)

사도신경 대신하여 고백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생명의 밥으로 오시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땅 온 마을에 가득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빚은 흙과 생명을 보듬어 안은 땅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며,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농부의 땀과 자연의 기운을 통해 생명을 풍성케 하심을 믿으며, 흙에서 배우고 흙을 돌보며 생명을 일구느라 땀을 흘리는 농부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믿나이다.

땅은 더럽힐 수 없으며, 결코 사고 팔 수 없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삶과 일을 나누고 섬기는 농촌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온 식구가 일한 뒤에 나누는 밥상이 진정한 주님의 성찬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논과 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만물에 깃들어 모든 것을 새롭게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짐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퍼포먼스 제안

교회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자. 교회에 맞게 변형시켜 활용하자.

그린데이(Green day)로 부를 수 있다. 녹색계통의 옷을 맞춰 입고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 마지막 찬송(또는 축도)은 서로 손을 잡고 해보자.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녹색의 의미(성령강림과 생명)와 서로 이어진 손(생명의 망)의 의미를 되새긴다. 교우가 함께 손을 잡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확인한다.

1년에 한번이니 만큼 식사재료를 농촌교회(훈련원, 농도생협에 문의)에 직접 주문하여 준비하고 이 날 특별히 잔반이 남지 않도록 홍보한다.

축도

농촌선교주일 축도는 반드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연합을 기원한다. 가능하다면 온 교우가 함께하는 공동축도도 좋겠다.

공동축도 / 집례자의 선창을 따라 교우가 함께 기도한다. 손을 잡고 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아래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염려하며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옆사람을 축복하며) 나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이어져 있으며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버이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가
그대에게, 그대에게(양 옆 사람을 지목하며) 또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를 잇는 생명의 망

에베소서 2장 11절 ~ 12절

이현식목사(진관교회)

“어느 해안가에 지나가던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인명 구조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돈으로 멋진 건물을 세우고, 구조대원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장소는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소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고 즐기는 사교장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배들은 침몰하였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곳을 나와 해안가에 다른 인명 구조소를 세우고 처음의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일은 또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들어온 후원금으로 휴식을 위한 공간을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명 구조소도 사교클럽으로 변해 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이, 그곳을 지나가는 배들은 침몰하였고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선(救援船)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유람선(遊覽船)으로 전락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조적인 세파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농어촌교회를 외면한 도시 교회의 모습을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빛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형의 빛은 아마도 금전적인 부분이 해당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빛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빛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게 되는 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그것인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빛을 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교육까지 시켜주었으니, 이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와서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 사랑의 빛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배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의 피와 물질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또 하나의 빛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빛은 바로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에 지고 있는 빛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과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부자는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진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친 욕심을 부린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이후부터 가속화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의 교회들은 농어촌교회에서 애지중지 양육되어진 교인들의 도시 이주로 인해서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교회들은 잘 양육된 농어촌교회의 이동 신자들을 큰 수고 없이 맞이했고, 그와 함께 농어촌교회의 우리는 텅텅 비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어촌교회에서의 탄탄한 신앙훈련이 기반이 되어 오늘의 모습이 되었노라고 회상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로부터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교회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첫 목회지가 농어촌인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초년 전도사가 좌충우돌하며 목회할 때에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준 그 성도들로 인하여 오늘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니 목회자들 역시 농어촌교회에 사랑의 큰 빛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복음과 사랑의 빛을 진 채무자로서의 도시의 교회들은 채권자에 해당되는 농어촌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1.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는 서로 하나로 연결된 가족공동체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교회는 먹거리의 소비자 공동체이고, 농어촌교회는 먹거리의 생산자 공동체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구조에서 보면 좋은 생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소비하려는 이들과 생산한 것들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둘 사이의 답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반자라는 의식보다는 협상하고 싸워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유

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듯이 도시와 농어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세워져 가야 하는 가족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기자는 133장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며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꼭 줄 것이나, 또 받을 것이 없어도 서로 끈끈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 합니다. 가족이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매여 있지 않고, 가족이기에 손해를 보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이후 진통의 시간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의 가족을 이루듯이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서로의 처지와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공간을 좁혀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왕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는 교회와 받는 교회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관계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도시의 교회들은 나름대로 농어촌의 교회에 많은 것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회적이었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수여자와 수혜자라는 수직적 도식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체교회들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된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 역시 한 몸 공동체입니다. 더욱이 우리 감리교회는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한 형제의식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2. 생명의 망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합니다.

농촌선교훈련원의 차홍도 목사가 펼쳐나가고 있는 “생명의 망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農)의 영성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농촌교회들과 뜻있는 도시교회들이 힘을 합쳐 생명의 먹을 거리를 나누는 것으로서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주고 받으며, 상품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를 하나로 이어가는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의 망 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열거하면

1)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먹 거리 장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농촌교회들이 생산한 먹 거리들을 도시교회에서 소비함으로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 상

생과 의존으로 한 몸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 만 있으면 도시의 교회들은 건물의 한 공간을 농촌교회가 생산물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확보해 놓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온라인 구매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도시. 농촌교회 간에 모자 또는 자매 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에 도시교회는 농어촌으로 수련회를 가서 함께 지내며, 농한기 때는 농어촌교회의 수련회를 도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감리교회의 특성상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했지만, 목회자가 바뀔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관계가 형성되도록 교인과 교인, 교회와 교회사이의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친척이 서로 교차하여 집집을 방문하여 정담을 나누는 것과 같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연회나 본부 그리고 지방차원에서 주관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도시의 교회들은 한 개 이상의 농어촌교회와 자매, 모자 결연을 맺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3. 선교의 대상으로 농어촌교회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도처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세계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단기선교,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여름, 겨울마다 해외 선교지로 향하는 도시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를 선교지와 선교대상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행사의 일환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과 겨울에 집중되는 수련회 중심의 지역선교를 좀 더 세분화해서 1박 2일 단위의 프로그램을 수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한적한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는 슬로우 라이프스타일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단순히, 밭 일하고 밥을 해먹는 것만으로도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쉼과 회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회의 선교회나 소그룹 단위를 중심으로 이러한 슬로우 라이프를 실현해 보고 자주 농어촌을 방문해 본다면 어떨까요? 큰 단위의 수련회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그룹 중심으로 시골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선교한다면 어떨까요?

농어촌교회는 선교지이고 선교의 대상이기에 단기적인 효과를 노려서는 서로 실망하기 쉽습니다. 도시교회가 큰 그림과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어촌교회와 주변 지역을 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선교를 나가는 도시교회도 풍성해질 것이고 선교지로서의 농어촌교회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 피로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착취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 해야만 하는 현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는 도시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농어촌 교인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농가의 부채와 가난의 대물림, 희망 없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교회와 농어촌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현실과 처지만을 바라보며 방관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면 원-원의 좋은 열매들이 분명 맺히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에 물질과 재원을 흘려보내고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에 쉼을 주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바로 이것이 21세기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요, 함께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의 역사는 남이 아닌 가족이요,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선교로 전환되어질 때 그 열매가 맺히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생명의 망 운동을 통해 함께 도농이 함께 좋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도농교회

창세기 2:4-7

하태경 목사(고내리교회)

[여는 말]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토종합개발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공업화, 도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은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편중된 개발로 변형되었으며, 그 결과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나서는 이농(離農)현상을 부채질하였고 심각한 사회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농촌 인구가 자기 지역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은 결국 농촌지역의 젊은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휴경작지의 증가를 비롯, 농촌의 노령화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농촌 지역에 등지를 틀고 있는 이른바 농촌교회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없고, 설령 있더라도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농촌 목회자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농촌교회의 현실은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막막한 농촌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몸 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없다하여 이방인을 멸시하고 헬라인은 미개하다 하며 타민족을 경멸하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구분과 차별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지고 갈등과 투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현장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시고 법조문의

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 2:13~15)”

세상과 육적인 세계에 빠져있던 때에는 원수된 것과 구분과 차별이 존재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차별과 억압의 담을 다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과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문제(죄)를 극복하고 해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한 새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수평적인 관계(사회적, 정치적 평화)와 수직적인 관계(신앙적인 구원)를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회복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포괄할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의 사건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농촌선교주일 성서해석, 조정철에서 인용)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2:19)

사회적, 문화적 담이 높아 상종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격차가 지금은 너무나 큼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화평케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라는 단순한 구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새사람,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림다.

예수님 당시에 강도만난 사마리아인이 길거리에 넘어져 있을 때,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다 외면하며 자기들의 갈 길만을 갔습니다. 그때 강도만난 사람을 구해 준 사람은 차별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였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와 자기 돈으로 정성껏 치료하여 살려주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농촌교회의 실존은 강도만난 자와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해외 선교지 탐방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들이 소망없이 누워있는 농촌의 현실에는 눈을 감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도만난 자의 실존과도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는 농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함께 외쳐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육신에 빠져 살아가던 때에는 구분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담장을 허물어뜨린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화평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담장을 무너뜨린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별과 억압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 갈릴리 시골로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을 “하늘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만이 아니라, 세상과 육적인 가치관에서 천상적이고 영적인 가치체계의 삶으로 옮겨진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목사님의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근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2: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 즉 근본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흑인도 백인도 하나가 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근거는 세상이 주는 통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홀로 아리랑이 아닌 하나로 아리랑

두 번째로 유의해 보아야 할 단어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혼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 잡고 밀어주며 이끌어주며 더불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타종교처럼 혼자 도(道) 닦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자녀로서 하나가 된 우리가 손에 손 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가는 곳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엡2:17~18)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복 받고 잘되기 위해서만 일까요? 나 혼자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막힌 담으로 인해 나누어졌던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평안을 전하고 나눔으로 더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동일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손에 손 잡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아리랑”이 아니라, 함께 가는 “하나로 아리랑”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당시 터부시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손에 손 잡고 끌어주며 밀어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분명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손에 손 잡고 밀어주며 끌어주며 갈 때에 하늘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 중에 “함께 갑시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손에 손 잡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로 아리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그러면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한 막힌 담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그 높은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1. 자주 만나야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최대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돈과 선물을 보내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서 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절로 마음이 통합니다.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정기적으로 농촌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또 농촌 교회의 현장 목회자를 예배에 초청하여 농촌의 현실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농 교류 사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농촌의 생계는 주로 영세한 자작농이나 가정농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재배시설이 없이 손수 땀 흘려 수고하여 소량의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꾸려 가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빛이 되기에는 너무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자본주의화가 극심해져 더 싸고, 더 많은 것만을 추구합니다. 대형마트 위주의 소비 형태는 농촌의 자작농, 가정농의 영세한 생산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가격경쟁력이 없는 농촌의 자작농, 가정농은 도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손에 손잡고 함께 가야 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도시교회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농촌 작물을 구입해주고 사용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촌 교회들도 생명을 살리는 농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유기농 농법으로 작물의 고품질화를 이루어가는 생명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많은 교회들의 아름다운 도농교회 교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그중에서도 삼척 큰빛교회(담임 김성태목사)와 돌산중앙교회(담임 최태영목사)의 사례는 도농교류의 아름답고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만 합니다. 설립된 지 65년이 된 돌산중앙교회는 지역에서 나름 자리잡은 교회이지만 70대 교인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 형편상 교회 관리와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지역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역 특산품인 무농약 돌산갓김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 교회 재정 및 지역 선교사역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중앙교회는 애농공동체를 통한 무농약 돌산갓김치 공장을 운영함으로 교회와 농촌의 잉여인력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라파엘노인복지센터, 노인대학,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가 여수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면서 돌산중앙교회 애농공동체 갓김치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선교회 바자회 사업 때마다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도시교회 여선교회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실천하면서 교인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또한 재정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농촌교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인하여 농촌지역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데 큰 보탬이 되는 상생의 생명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교회 안에 ‘농산물직거래센터’와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농촌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일환으로는 농촌 교회의 턱없이 부족한 물적 인적 자본의 한계로 손도 못대는 대지역선교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도시와 농촌 교회는 함께 상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맺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시와 농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로 너무나도 멀어진 도시와 농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한 성령 안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눈다면 분명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보고 교류하면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도농 직거래와 같은 농어촌 교류 사업을 통하여 물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직도 머나 먼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한 하는 길이기에 도시와 농촌교회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도농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도농교회가 되시기를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이다. 비록 인간이 흠으로 만들어졌을 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육신 그 이상이다. 흠으로만 된 육신은 동물적인 것 이상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흠으로 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은 육신 이상의 인간이 된 것이다. 즉 흠덩이 이상의 존재가 된 것이다.

농촌선교 이렇게 동참합니다

1. 농촌교회는 생명살림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나갑니다.
2.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생명 농산물 소비운동에 참여합니다.
3.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읍시다.
4. 우리교회 공동식사는 감리교회가 생산한 생명의 쌀을 씹시다.
5.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를 생명의 먹을거리로 이어주는 '감리교 농도생협'을 애용합니다.
6. 농촌선교를 후원하는 1교인 1구좌 운동에 동참합니다.
농촌선교훈련원(<http://hunn.or.kr>) 국민은행 402-01-0433-002 훈련원
7. 농촌교회 가족농을 위한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1구좌 3,000원 / 우체국 300079-01-003921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접수기간 9월 1일 ~ 30일

2015

농촌선교 사진 콘테스트

대상

농촌 목회 · 선교를 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목회자

주제

1. 계절별 교회 사진 2장 (교회를 배경으로 4계절 중 서로 다른 2계절 사진 각 1장씩)
 2. 농촌 목회, 선교, 활동 사진 3장
- ※ 응모자는 1번과 2번 항목을 모두 포함한 사진 총 5장 제출

규격과 조건

1. 출품 사진은 jpg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크기는 최소 3600 x 2400(픽셀)로 해야 함.
2. 각 사진마다 30자 이내의 사진 설명을 붙여야 함
3. 출품 파일명 : 교회명_작품명_출품자 이름 (예:00교회_00교회 여름사진_홍길동)

심사 기준

농촌 목회·선교 활동 표현성, 작품의 진실성, 사진의 기술성

접수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이메일(hunn@hunn.or.kr)로 접수

문의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043-873-0053) / 감리회 본부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02-399-4340)

수상자 발표

10월 20일 농촌선교훈련원 홈페이지(www.hunn.or.kr)

시상 내역

대상 1명 : 상장과 상금 20만원
우수상 1명 : 상장과 상금 10만원
참가상 : 기념품

기타 안내

1.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입상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본 기관에 귀속되며, 11월 6일에 열릴 “농촌선교한마당”에 전시됩니다.
3. 참가하신 모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감리교 생명살림 일꾼상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감리교 일꾼들을 추천해주세요

수상 자격과 시상 내역

추천 기간

2015년 9월 1일 ~ 10월 10일

추천 방법

농촌선교훈련원 홈페이지 참조
www.hunn.or.kr

추천인 자격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수상자표 발표

10월 20일

농촌선교훈련원 홈페이지 공고

시상식

11월 6일, 아현교회

농촌선교상

10년이상 농촌선교를 한 목회자 또는 단체

상금 : 30만원상당의 농도생협 상품권

생명농업인상

20년 이상 친환경농업에 힘쓴 감리교인

상금 : 30만원상당의 농도생협 상품권

젊은농부상

3년 이상 친환경농사를 한 젊은 감리교인

상금 : 20만원상당의 농도생협 상품권

우수조합원상

서로살림농도생협 우수 조합원명(3명)

상금 : 10만원상당의 농도생협 상품권

문의 : 043-873-0053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 · 아현감리교회

주최 |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 서로살림농도생협



꿈과 힘 그리고 희망의 ‘하루 100원’

농촌선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하루 100원 모으기 1만성도운동 이 시작되었습니다 .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의 참가자 1만명을 통하여 농촌교회의 가족농을 지원하는 중요 과제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사업과제

- ① 농촌교회의 근간인 가족농 지원사업 ② 농촌교회의 선교·교육 프로젝트 개발
- ③ 농촌목회자 및 교우 자녀 장학사업 ④ 농촌목회자의 기초생활비 지원 ⑤ 농촌교회 농산물 직거래 유통망 구축